

## 2개월 영아 숨지게 한 '백일해' 급증... "예방접종 중요"

광주 635명·전남 1401명 발생  
마스크 착용 줄면서 감염 증가  
소아청소년 감염 비중 90%대  
"임신부·폐질환자 백신 접종을"

최근 국내에서 '백일해'로 입원 치료를 받던 생후 2개월 미만 영아가 2011년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사망하면서 전국의 부모들이 긴장하는 가운데 광주, 전남지역 백일해 발생건수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백일해 폭증 현상과 관련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와 동거가족 등 성인들의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나섰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여름과 가을에 발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다. 백일해는 감염 후 평균 7~10일 동안의 잠복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이후 1~2주 동안 가벼운 재채기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발작성 기침이 4주 이상 지속되는 2급 감염병이다. 성인의 경우 별다

른 증상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소아의 경우 구토, 탈진,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백일해 전체 발생자 수는 11월 12일 기준 총 3만2876명으로 이중 소아 청소년이 2만9828명으로 전체의 90.7%를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백일해 발생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경기가 1만101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으며, 서울이 4476건, 인천이 3500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도 전년보다 30배 이상 증가한 총 635명이 발생했다. 실제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잠정통계로 변동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12일 기준 광주지역 백일해 발생건수는 △2018년 47건 △2019년 29건 △2020년 9건 △2021년 0건 △2022년 0건 △2023년 23건에서 올해 크게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산구 166건, 남구 117건, 서구 102건, 동구 20건이다. 다만 광주는 △세종 99건 △충북 590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발생건수가 낮았으며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도 44.56건으로 전국 평균인 63.98건을 하회했다.

전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5

년간 전남의 백일해 발생건수는 △2019년 32건 △2020년 21건 △2021년 0건 △2022년 1건 △2023년 1건이었으나 올해 11월12일까지 140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여수가 4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도가 273건, 목포가 130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진 9건 △고흥 3건 △곡성 2건 △광양 99건 △구례 4건 △나주 21건 △담양 5건 △무안 63건 △보성 27건 △순천 125건 △신안 6건 △영광 10건 △영암 53건 △장성 13건 △장흥 28건 △진도 16건 △함평 4건 △해남 36건 △화순 60건 등이다.

전남의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은 77.36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13.38건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해제로 마스크 착용률이 낮아지며 백일해 감염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법이 발전해 많은 환자를 찾아낼 수 있게 된 것도 환자 수 폭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예전 같으면 감기로 지나쳤던 것들까지 세균성 감염병 진단으로 통계에 잡히는 것이다.

백일해는 예방 접종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 조기 접종이 중요하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생후 첫 접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27~36주) 임신부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등 고위험군,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

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올해 백일해 유행 상황을 고려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백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기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은 호흡기감염병 발생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설월여고 수능 응원 2025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광주 설월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선생님들과 후배들의 응원에 '수능 대박 중'을 치며 학교를 나서고 있다.▶관련기사 4면 김양배 기자

## 올해도 '수능 한파' 없이 포근... 짙은 안개 '주의'

광주·전남 오늘 낮 최고 21도  
"일교차 커 수험생 건강 관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인 14일 광주·전남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수능 한파' 없이 포근할 전망이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을 것으로 보여 교통 안전이 요구된다.

1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을 예정으로 당분간 기온

은 평년(아침최저기온 2~9도, 낮최고기온 15~17도)보다 3~5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아침최저기온은 6~14도, 낮최고기온은 19~21도가 되겠고, 15일 아침최저기온은 11~16도, 낮최고기온은 19~22도로 예보됐다. 다만 낮과 밤 기온차가 10~15도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다.

14일 새벽부터 오전 10시 사이 광주·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 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는 14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5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20mm로 수준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능일에 큰 추위는 없겠으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큰 만큼 수험생들은 겉옷을 챙겨 체온을 유지하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짙은 안개로 인한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준명 기자

전남일보 연중 캠페인 바다를 살리자

## 해양영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심포지엄

'해양영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 해양영토의 중요성과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식 증진'

- 일 시: 2024년 11월 14일 (목) 13:30 ~ 17:30
- 장 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 문 의: 전남대학교 (062) 530-5027  
전남일보 (062) 519-0730
- 주최·주관: 전남대학교 · 전남일보 · (사)전일엔클리
- 후 원: 전라남도 · 한솔이엔씨